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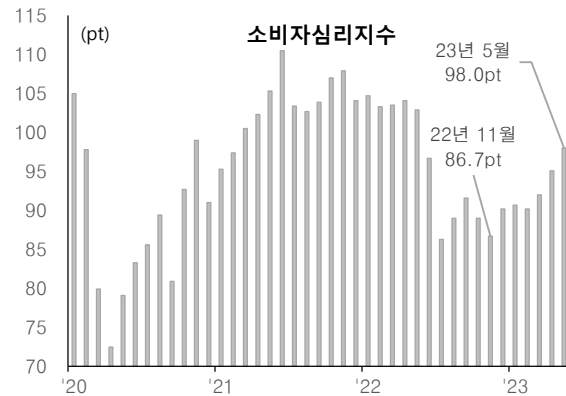


소비주체의 리스크에 대한 시각 완화

1. 연초 이후 회복세가 지속중인 한국 소비자심리

- 5월 한국의 소비자심리지수는 98.0pt를 기록. 금년 2월 이후 최근 4개월 연속 전월 대비 상승.
- 소비자심리를 구성하는 세부 항목별로 차이가 존재하지만 전반적인 수입과 지출전망이 안정적인 모습.
- 당분간의 소비생활에서는 예상보다 견조한 수준의 지출패턴이 진행될 것. 가장 큰 불확실성 요인이었던 질병 이슈가 사라진 점이 큰 기여.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해 11월 당시 외환리스크 및 부동산 리스크 등이 반영된 낮은 수치에서 최근 빠른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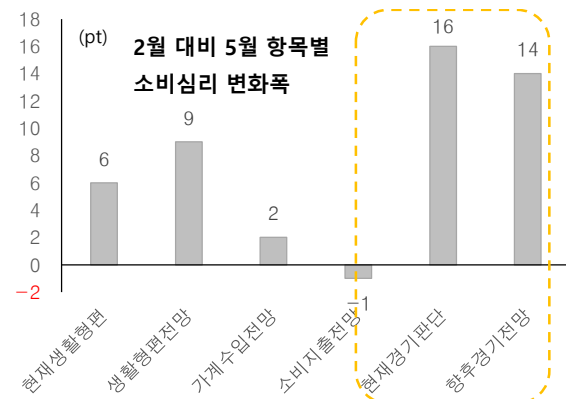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유엔터증권 리서치센터

2. 인식의 전환

- 현재경기판단과 향후경기전망이 금번 조사에서는 각각 +6pt씩 상승한 것을 감안한다면 경제를 바라보는 민간 경제주체의 심리는 빠른 회복.
- 경기에 대한 인식은 직접적 구매력보다는 경제 전반의 회전을 설명. 즉,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낮아졌다는 인식 확산.
- 물가진정과 부동산가격 상승 전망은 그동안의 대표적 리스크요인이 진정됨을 의미.

소비자심리지수를 구성하는 여섯 가지의 지표 중 전반적 경제상황 인식 개선은 리스크 진정을 의미.



자료: 한국은행, 유엔터증권 리서치센터

1. 연초 이후 회복세가 지속중인 한국 소비자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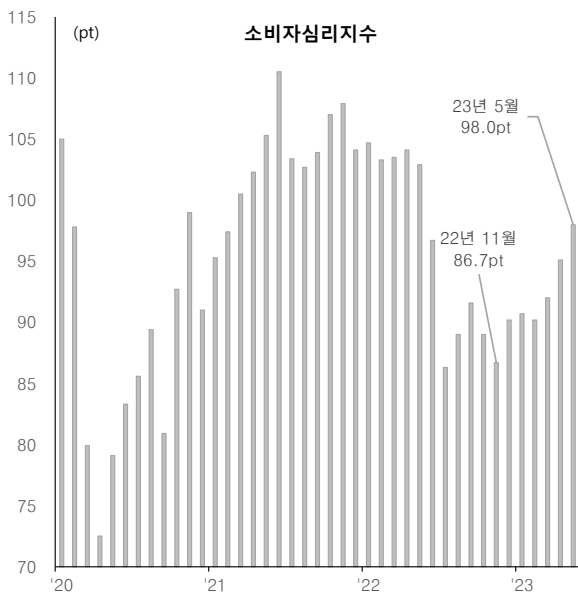
5월 한국의 소비자심리지수는 98.0pt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장기평균 기준선인 100pt를 하회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금년 2월 이후 최근 4개월 연속 전월 대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소비자심리의 헤드라인은 2~3pt 내외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지난해 11월 당시 극단적으로 부진하였던 모습을 탈피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소비자심리를 구성하는 세부 항목별로 차이가 존재하지만 전반적인 수입과 지출전망이 안정적인 모습이다.

지출전망 항목별로 보면 내구재, 의류비, 외식비, 여행비, 교양오락문화비가 지난달 대비 상승하였으며, 의료보건비, 교통통신비, 주거비 등은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완전한 코로나19 종료에 따른 정상생활로의 진입 과정에서 나타나는 소비의 정상화 과정이 완만하지만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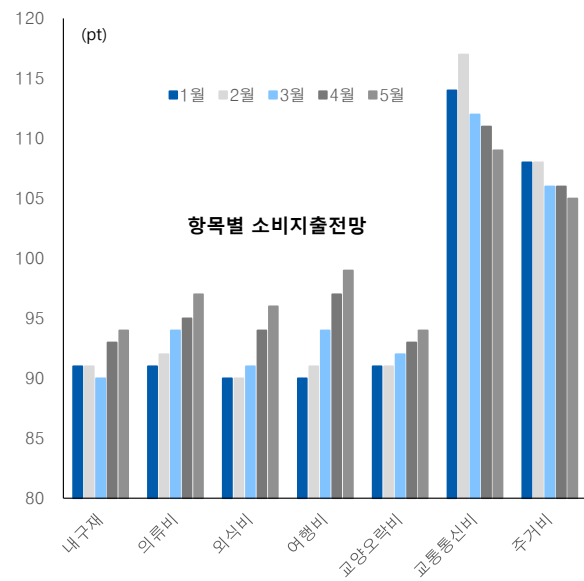
실제 생활에서 방역수칙이 거의 종료된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의 소비생활에서는 예상보다 견조한 수준의 지출패턴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불확실성 요인이었던 질병 이슈가 사라진 점이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차트1]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해 11월 당시 외환리스크 및 부동산리스크 등이 반영된 낮은 수치에서 최근 빠른 회복.



자료: 한국은행,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2] 정상 생활로의 복귀 기조가 이어지면서 전반적인 소비지출 의지 확산이 이어지고 있음.



자료: 한국은행,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 인식의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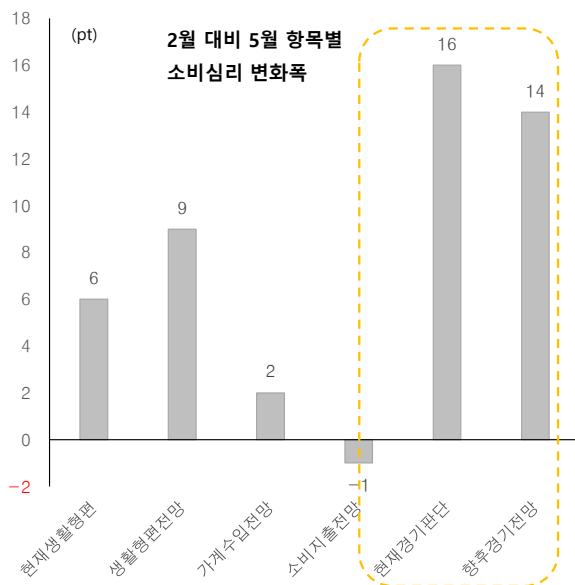
앞서 언급한 소비지출전망 등 직접적인 행동 변화를 볼 수 있는 지표는 상대적으로 변동이 적지만 전반적인 경기에 대한 인식에서는 빠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현재경기판단과 향후경기전망이 금번 조사에서는 각각 +6pt씩 상승한 것을 감안한다면 경제를 바라보는 민간 경제주체의 심리는 빠른 회복으로 볼 수 있다.

소비자심리지수를 구성하는 주요 6가지의 지표 중에서 경기에 대한 인식은 직접적 구매력보다는 경제 전반의 회전을 설명해 준다. 즉,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낮아졌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물가수준 전망은 꾸준히 하락하면서 기대인플레이션율이 3.5%까지 하락한 모습을 감안한다면 일단 물가상승에 대한 부담은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지출을 주도하는 경제주체의 심리 회복과 연계되는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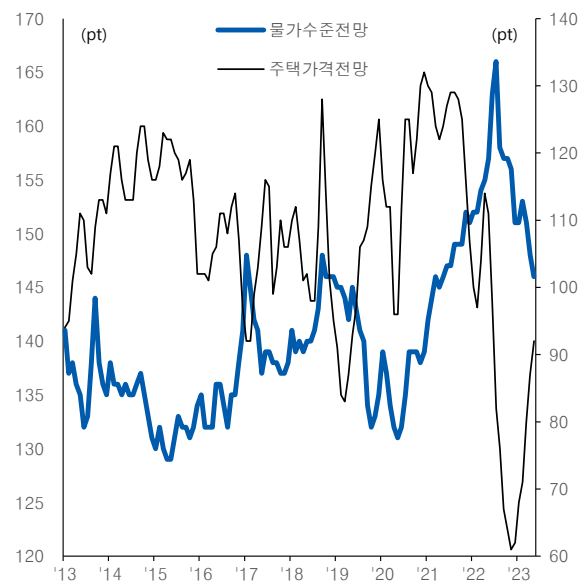
한편 최근 1년여 간 한국 경제에서 가장 큰 리스크요인이었던 부동산시장에 대한 인식도 조금씩 진정되고 있다. 주택가격전망이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회복중인데, 이는 각종 리스크요인에도 불구하고 추가적 낙폭을 제한하는 요소로 생각된다.

[차트3] 소비자심리지수를 구성하는 여섯 가지의 지표 중 전반적 경제상황 인식 개선은 리스크 진정을 의미.



자료: 한국은행,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4] 두가지 큰 리스크요인으로 언급되던 물가와 부동산 관련 우려가 빠르게 진정되는 중.



자료: 한국은행,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3. 아직까지 부진한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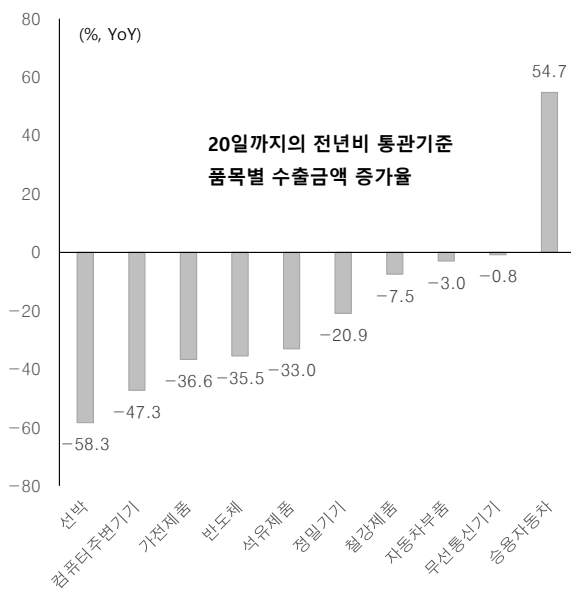
민간의 지출과 관련된 소비심리는 완전한 개선세가 진행되고 있으나 대외경기 측면에서는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5월 20일까지의 수출은 전월비 -16.1%(일평균 -13.2%)의 감소를 기록하여 여전히 두자리수의 낙폭이 이어지는 중이다.

한편 수입 역시 -15.3%를 기록하면서 감소세가 동시에 진행 중이다.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 성장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마진 자원에서의 무역수지 역시 적자가 지속되는 중인데, 현재까지 약 43억불의 적자가 기록되었다.

주요 항목과 대상국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여전히 수출부진에도 불구하고 승용차 수출 금액은 전년비 +54.7%를 기록하였다. 미국에서의 수입 증가가 이어진 운송장비 수요가 지속되는 만큼 한국 수출에도 큰 기여를 하는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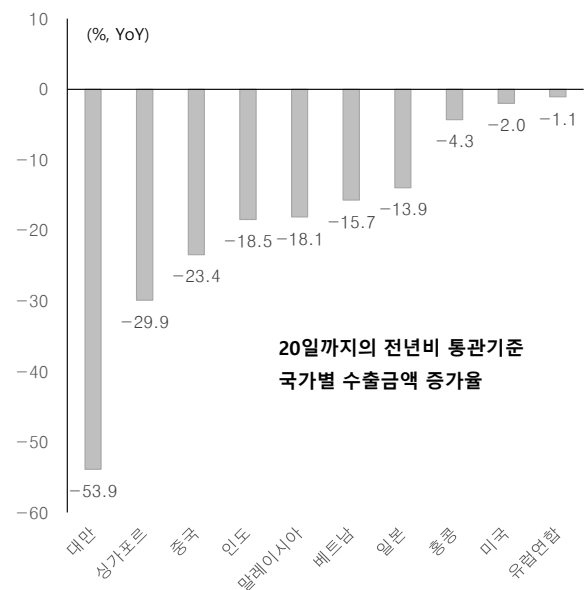
한편 여전히 수출이 부진한 항목은 반도체인데 전년비 -35.5%의 하락을 기록하였다. 연결지어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중국향 수출(-23.4%)인데, 그동안의 반도체 재고 누적과 중국의 방역에 따른 생산차질이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동 부문에서의 전향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의 수출 개선세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차트5] 승용자동차 등 운송장비를 제외한 주요 수출품목의 증가율은 전년비 큰 폭의 하락이 이어지는 중.



자료: 관세청,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6] 중간 가공단계에서 통관으로 반출되는 국가별 수출은 부진한 반면 최종재 수요처인 선진국은 상대적 견조.



자료: 관세청,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